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6:40 갈데까지 가보자(재) 50월경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8	00 청조경제, 장관에게 길을 묻다 20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00 KBS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재) 55 튜튼 생활제조(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우리말 거꾸기(재) 55 바튼알 고문말(재)	15 사랑의 가족 45 영화가 좋다(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혼자 사는 여자(재)	00 KBS 뉴스12	50 VJ특공대(재)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40 뉴스 추적자	00 시사기획 창(재) 50 행복발간소 제로 프로젝트	00 주말특별기획 <황금무지개>(재)	30 한국의 맛(재)
2	40 직업인실	10 고향극장(재)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재)	00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50 캐도난마 1~2부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 25 두리동실 동계공화(재) 55 TV 유치원 공따공	10 SBS 이슈인 사이드
4		00 KBS네트워크 특선 필통 55 튜튼 생활제조	25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5 비타빈(재)	00 최강! 탐플레이트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2014 지방선거 정강정책연석(민주당) 40 남도지도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채널A 뉴스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05 세상발견 유레카(재)
7	20 갈데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 여자>	10 시사타자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8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임마가 있는 동경 마미도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파노라마 50 생생최전선	00 수목 드라마 <감격 시대>	00 드라마스페셜 <쓰리데이즈>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라일	10 해피 투게더	15 자기가
12	30 모큐드라마<싸인>(재) ①:40 동아인포섹 2014 <개인정보유출, 해법은 없는가>	30 인문강단 략(樂) ①:10 네트워크 문화특선 이한철의 올댓뮤직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임마의 도전 스포츠 모델이 되다>	35 나이트 라인 ①:05 풋볼 매거진 골!

EBS

05:00 World News Review
05:40 장수의 비결(재)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07:00 곤(재)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07:30 꼬마버스 티요(재)
07:45 로보카 폴리(재)
08:00 덩동영 유치원
08:20 책과 땅(재)
08:35 방구대장 뽕뽕이
08:50 How-만들어 볼까요
09:05 책갈피 요정 도보(재)
09:20 미술탐험대
09:35 아기 고릴라 동동

부모

(생활백과)
10:10 리얼토크 부부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모로코>(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재난
13:10 사이인
13:20 풀풀! 페퍼는 즐거워
13:30 고양이 파피
13:45 반짝반짝 빌영 클럽

14:00

머털도사
14:30 코코몽2
14:45 군
15:00 지구를 지켜라
15:15 마시와 곰
15:30 모여라 덩동영 스페셜
16:00 덩동영 유치원
<레조고 파파>(재)
16:20 우당탕탕 아이쿠
16:30 책갈피 요정 도보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17:00 방구대장 뽕뽕이(재)
17:15 꼬마버스 티요
17:30 로보카 폴리

17:45

두더지몽
18:00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
19:00 리얼체형 명
19:30 EBS 뉴스
19:50 달라졌어요(재)
20:40 다크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스페인>
21:30 한국기행
<소안군도>
21:50 EBS 특별기획
<행복한 학교 만들기>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장수의 비밀
24:05 EBS 스페이스 공감 1·2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Ⅰ>
00:50 <국어Ⅱ>
01:40 <영어독해의 기본Ⅱ>
02:30 <수학Ⅱ>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04:10 <과학>
05:00 <한국사(하)>(재)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Ⅰ>
07:30 2014 포스 <문학Ⅱ>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Ⅱ>(재)
09:10 <수학Ⅱ>(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10: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11:40 박복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12:10

5분 고평-지구과학Ⅰ
12:15 수능 특강
13:05 <수학Ⅰ B형>
14:50 <영어 A형>
15:40 <영어 B형>
16:30 <한국지리>
17:20 <사회문화>
18:10 <경제>
19:00 <윤리와 사상>
19:50 5분 고평-지구과학Ⅰ (재)
20:00 수능특강 <국어 B형>(재)
21:00 <영어 A형>(재)
22:00 <영어 B형>(재)
23:00 수능특강 <한국지리>(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민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08:00 행정사 시험 대비 강좌
08:30 교육학 논술
09:00 출가문 수학 EBS MATH
09:10 TV 종합 <국어①②>
09:50 <영어①>
10:30 <도덕②>
11:10 <국어③④>
11:50 <영어②>
12:30 통합신공 <사회①>
13:10 <역사①>
13:50 <역사②>
14:30 <사회②>
15:10 스물렌드 <과학③-1>
15:50 <과학④-1>
16:20 <과학⑤-1>
16:50 <과학⑥-1>
17:20 만명평 평가문제풀이 <수학중점 6-1>(재)
17:50 스물렌드(재)
18:00 TV 종합 <역사해>
18:40 <사회③>
19:20 통합신공 <역사해>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사회>
20:40 <세계사>
21:20 <세계사>
22:00 <한문>
22:40 <수학>
24:00 EBS 역사특강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3월 20일(음 2월 20일 庚寅)



子

36년생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하다. 48년생 간 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60년생 자신이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 72년생 진솔하게 털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잘 받은 이쁜 셈이다. 행운의 숫자 : 90, 60



丑

37년생 기다려야 할 때다. 49년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좋다. 61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다. 73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85년생 재물을 얻는 길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7, 78



寅

38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느니라. 50년생 시비는 명백하게 가려야 한다. 62년생 오해를 풀고 나면 불만이 해소 되리라. 74년생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번 잊 따라 일어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02



卯

39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속이 있어야 하겠다. 51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63년생 통례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이로우리라. 75년생 무조건 밀어 붙이거만 하면 이루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35, 22



辰

40년생 몇 발자국 물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보일 것이라. 52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64년생 구체적이지 않으면 뜬구름에 불과하다. 76년생 힘을 들이고 애를 써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5, 94



巳

41년생 잠시 중단한 후에 판단할 일이다. 53년생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흔흔히 대하라. 65년생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77년생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23, 61



午

42년생 분수를 지키고 도리를 다 해야 무탈 하리라. 54년생 꿈 짝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66년생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면 우스운 꼴이 되리라. 78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행운의 숫자 : 83, 53



未

43년생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55년생 멀리서 오는 이가 기쁨을 더하리라. 67년생 근원을 찾아보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라. 79년생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는 곤든 탐이 무너진다. 행운의 숫자 : 06, 31



申

44년생 불안정한 바탕 위에 놓여 있음을 알자. 56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그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68년생 신규에의 참여는 절대로 부적합하다. 80년생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8, 40



酉

45년생 점점 짧아지고 깊어지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니라. 57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69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진력해야 하느니라. 81년생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8, 49



戌

46년생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이 안전하다. 58년생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진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70년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82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2, 96



亥

47년생 성취할 수도 있는 천재일우가 보이나 절대로 놓치지 말라. 59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71년생 조언을 구해본다면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다. 83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일점이 이루어라. 행운의 숫자 : 86, 7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 환영!” ☎010-9790-8237

대통령을 지켜라 ‘쓰리데이즈’

암살시도 실패하니 인기 급상승

대통령 암살범 대경호원 이야기

‘감격시대’에 우세승…시청률 1위

휴가 중에 암살 위험에 처한 대통령과 그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경호관의 이야기를 담은 SBS ‘쓰리데이즈’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대통령에 대한 한 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대통령 이동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를 죽이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지난 5일 시청률 11.9%로 출발한 드라마는 지난주 4회 만에 KBS ‘감격시대’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동시간대 1위로 올라섰다. 경제수석인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던 경호관 한태경은 결국 대통령 암살범으로 몰려 홀로 쫓기면서 사라진 대통령을 찾아 지켜내야 하는 상황. 한태경을 연기하는 박유천은 처음 하는 거친 액션 연기에 어깨를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18일 일산제작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는 “몸을 혹사하고 감정을 끌어올리는 작품에 매력을 많이 느낀다”며 “특히 이번 작품에서 액션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누명을 쓰고 달아나다 기차 안에서 다른 경호원들과 맞붙은 장면은 거의 하룻밤을 꼬박 새워 찍었다. 그는 “고생한 만큼 임팩트 있게 나와서 흡족하다”며 “이렇게 액션을 하는 건 처음인데 액션을 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배우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유천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렇게 하고 싶는데 잘 안 될 때 답답하고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다”며 “작가와 감독님도 오랜

쪽 어깨를 안 쓸 수 있도록 많이 상의하고 스태프들과 배우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촬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친 오른쪽 어깨는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의사가 현장에 동행하면서 촬영 중이다.

영화 ‘해무’의 막바지 촬영과 드라마 초반 촬영 일정이 겹치면서 그는 한 달가량 늦게 합류했다.촬영 초반에는 “빨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빨리 찍자는 마음이 앞서 놓친 게 많다”며 아쉬워했다. “지금은 한태경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태경이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을 느끼며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며 “대본을 처음 읽을 땐 드라마가 이렇게 딱딱할 줄 몰랐다. 대본으로 읽은 감정이나 액션의 크기가 촬영하면서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통령 이동휘 역을 맡은 손현주는 “5부부터 인물들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다”며 기대를 밝혔다.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이동휘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모든 경호관을 몰라치고 몰래 휴가지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사고가 난 뒤 혼자 걷는 대통령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스트레스 많고 비밀 많은 이동휘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며 “새벽 공기는 차갑고 아름다웠다”고 감상적인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편지 않은 대통령이라 야외 장면이 많아 많이 돌아다녔는데 4부까지 많이 등장하지 않아 아이는 촬영하러 다니는 게 맞냐고 묻는다”며 “재벌에서 대통령까지 사회적인 지위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 드라마가 끝나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암살 세력으로 밝혀진 경호실장 역의 장현성은 “동화처럼 쉬운 이야기로 설



박유천

명하기는 어렵지만, 쉽고 명쾌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시선을 배치한 것”이라며 “특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합뉴스

트로트 엑스 “웃음과 눈물 다 잡겠다”

엠넷 내일 밤 11시 첫방송

나이 지긋한 성인의 장르로 여겼던 ‘트로트’가 새로운 감각으로 변신해 시청자에게 찾아온다.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엠넷 음악 버라이어티쇼 ‘트로트 엑스’ 제작발표회에서 김기웅 국장은 “평평 올라가도 막 웃을 수 있는 국과 국의 매력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김 국장은 이어 “오래전부터 좋은 트로트 가수 분들을 모시고 제대로 된 트로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앞으로 트로트를 가장 재미있는 1등 음악 장르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트로트 엑스’는 트로트 장르 가수와 비(非)트로트 가수가 ‘트로트셔(트로트+프로

듀서)’ 역할을 맡아 일반인, 연예인 참가자와 팀을 짜 서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다. 트로트 진영에서는 태진아, 설운도, 홍진영, 박현빈이, 비트로트 진영에서는 박명수, 유세윤, 아이비, 유지가 출연해 진영 별로 한 명씩 모여 총 네 개의 ‘트로트셔팀’을 구성한다.

음악과 예능의 균형을 위해 비트로트 진영은 예능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많은 출연자를 섭외한 점이 눈에 띈다. 최근 가수 비와 ‘비진아’ 합동 무대를 꾸며 화제가 된 태진아가 프로그램의 만형으로 나선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박명수와 EDM(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버전 ‘동반자’도 선보일 예정이다.

태진아는 “비진이 활동도, 박명수와와 콜라보레이션(협업)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막상 끝내니 쉽고 재밌었다. 트로트는 역시 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다음에는 엑소와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웃음)”고 말했다.

이어 “트로트에 무엇인가 곁하는(엑스) 다양한 합동 무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눈물, 감동, 스텝, 사랑, 예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설운도도 “방산곡을 통틀어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이 2~3개 밖에 없다”며 “30년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예뻐라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또 “프로그램이 트로트 음악 활성화와 세대간 소통의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젊은 이들이 트로트를 접하고 사랑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며느리 덕에 늘 유쾌한 손입할머니



장수의 비밀(EBS·밤 11시35분)=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진도. 한 마을 회관에서 순림(90)씨와 춘자(51)씨가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마을 할머니들 역시, 너무나도 다양한 두 사람을 참이 마르게 칭찬을 한다. “저런 며느리, 저런 시어머니 조선 팔도 어디에도 없어.” 모녀지만 같은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고부지간이다.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시집 온 춘자 씨를 딸처럼 생각하고 키워왔다. 딸 같은 며느리에게 일 시키기가 아까워, 자신이 집안일을 하고 며느리를 공부시켰다면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남편보다, 시아버지보다 더 좋은 춘자 씨. 할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고 며느리가 되었다. 잘 키운 며느리와 친정 엄마 같은 시어머니. 춘자 씨 덕에 늘 유쾌한 손입 할머니의 건강 비결을 소개한다.

생존율 10%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최전선(KBS1·밤 10시50분)=지난해 11월20일 한 환자가 혼수 직전 상태로 다터 헬기를 타고 강원 영서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됐다. 체색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해 머리를 다친 49세의 김삼영 씨였다. 두개골 내에 고인 피가 뇌를 압박하는 ‘급성 경막하출혈’이 의심됐다. 수술을 해도 사망률이 90% 이상.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김삼영 씨. 그리고 그의 곁에는 남편의 소생을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아내 이순자 씨가 있었다. 김삼영 씨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은 3% 정도였다. 신경외과 오지웅 교수의 집도로 응급수술이 실시됐다. 두개골을 열어본 결과 뇌에 피멍이 심했다. 예후가 불안하다는 의미였다.

최수종·하희라부부와 야물루가족



글로벌 홈스테이 집으로(MBC·밤 11시15분)=최수종과 아마존 가족들이 갑골농장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사이 몰래 생일파티를 준비하는 하희라와 야물루 모녀. 아마존에는 생일파티가 없다고 한다. 제주도에서 하는 야물루 가족의 첫 생일파티. 첫 서프라이즈 파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늘 씩씩하지만 했던 야물루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붓음을 호소하는 야물루는 심상치 않은 진단 결과를 듣게 된다.

급기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야물루와 미안함에 폭풍 눈물을 흘리는 하희라 대체 야물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야물루가 병원에서 나오자 최수종 가족은 바다 위의 큰 배를 타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위해 완도로 향한다.